

# 간화선 명상 4회

육조단경

오승진, 5/21/24



# 참선과 수행



육조 대사 혜능께서 말한  
참선과 수행에 대해 알아 보고,  
이를 토의하고자 함.



## 무념, 무상, 무주

무념無念을 세워서 종宗을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體를 삼으며  
무주無住로써 본本을 삼느니라: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무념],  
생각을 객관화하지 말고 [무상],  
상을 지어도 이에 집착하여 잡고 있지 않는 것 [무주]

좌선: 선정; 청정함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  
; 남에게 시비 따지지 마라.





##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으뜸으로 한다.

[무념이란] 반야삼매다. 즉, 지혜로 비추어 안팎이 밝게 사무쳐 자기 본심을 아는 것.

육조단경 10장: 유통을 부촉하다."이 법은 둘이 없으니 그 마음도 또한 그러하며, 그 도는 청정하여 또한 모든 상이 없나니, 너희들은 부디 삼가 고요를 관하거나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가히 취할 수 있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지내거라."

이 말씀은 육조단경 내내 일관됩니다. 즉, 1장에서 반야심경과 금강경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러나 만약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法縛이며 변견邊見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념은 반야삼매라고 하셨습니다.

★★ '부촉'은 '咐囑'이라고 쓰며, '증일아함경'에서는 '나는 이제 이 『증일아함』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잘 외우고 읽어 쇠퇴하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후세에 유통시키고, 수지 독송하며 서로에게 전함.



## 무념, 1장에서

1장, 반야심경과 금강경 법문 중

선지식아, 지혜로 비추어 보면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아나니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본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얻었으면 곧 그것이 반야삼매般若三昧며 또한 이것이 무념無念이니라. 어찌하여 무념이라 할까? 만약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 작용을 일으킨 즉 일체처에 두루 하되 일체처에 착하지 않으며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六識으로 하여금 육문六門으로 나오더라도 육진六塵 중에 물들지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시 반야삼매며 자재해탈이니 그 이름이 무념행이니라.

그러나 만약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法縛이며 변견邊見이니라.

## 정혜

【정혜定慧】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선지식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혜定慧로써 근본을 삼느니라. 대중은 미혹하여 정定과 혜慧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혜는 일체요 둘이 아니니 정은 혜의 체體요, 혜는 정의 용用이니라. 혜가 발현될 때는 정이 혜에 있고, 정에 들어 있을 때는 혜가 정 속에 있나니 만약 이 도리를 알면 정혜를 함께 배우게 되리라. 정혜는 등불과 같다. 정은 등, 혜는 불.

정혜결사 定慧結社, 보조 지눌 국사, 돈오점수

<https://gujoron.com/xen/gangron/279209>

## 선정과 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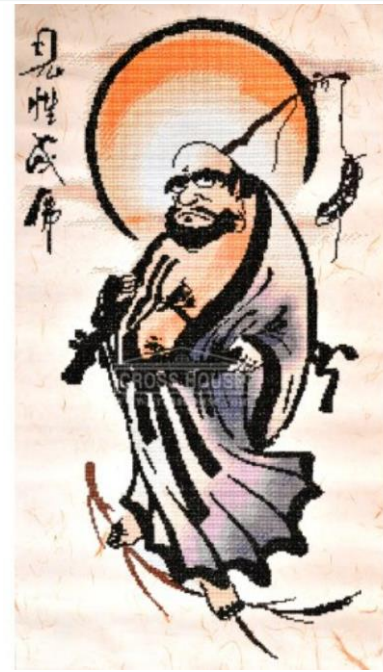
밖으로 상(相)을 벗어나는 것이 곧 선(禪)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곧 정(定)이다.  
밖으로 선(禪)하고 안으로 정(定)하면 바로 선정(禪定)이다.

[육조 혜능 스님의 좌선과 선정에 대해, 육조단경]“여러분, 무엇을 일컬어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法門) 속에서 장애가 없어서,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좌(坐)라 하고, 안으로 자성(自性)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일러 선(禪)이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상(相)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禪)이고, 안으로는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定)이다. 밖으로 상(相)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밖으로 상(相)을 떠난다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본래 안정되어 있다.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럽게 된다.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이것이 참된 정(定)이다. 여러분! 밖으로 상(相)을 벗어나는 것이 곧 선(禪)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곧 정(定)이다. 밖으로 선(禪)하고 안으로 정(定)하면 바로 선정(禪定)이다.”

## 견성, 자기 마음을 보라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알라, 자성이 불성이다. 자등명한 생각 깨우치면 부처요, 한 생각 어리석으면 중생이다.  
수행은? 일상이 수행이어야 한다.

“너희들이 만약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성취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일상 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일체처에서 마음이 상상에 머물지 않고, 또한 저 상 가운데에 있으면서 밋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익이 되나 이루어지나 허물어지나 등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고 평온하고 고요하며, 허공처럼 비고 통하고 또한 단박하면, 이것을 일상 삼매라 하느니라. 만약 일체처행·주·좌·좌에 마음이 순일純一하고 직심直心이면 도량道場을 옮기지 않고 참으로 정토淨土를 이루리니, 이것을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위의 두 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를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과일이 여무는 것과 같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 법신, 화신, 보신

5장 오분향과 참회법을 정하다



청정법신, 본래 마음; 구름이 걷힌 하늘과 같이 견성한 것, (방법)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보며 남의 호오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청정법신에 이른다.

천백억화신, 행; 변화를 많이 하나, (방법) 한 생각을 선으로 돌이키면 곧 지혜가 생긴다.

원만보신, 혜; (방법 1) 지나간 일은 생각지 말고 항상 뒤를 생각하라, (방법 2) 자성이 일념의 선을 생각하면 항하의 모래수 같이 수 많은 악이 모두 없어져 무상보리에 이른다, (방법 3) 생각마다 자성을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이 보신이다.

성불하십시오 🙏

그리고



육조단경 공부, 정토회 경전대학

# 선불교

선불교의 역사적 자리 매김; 대중에게 잘 호소됨.  
부처님의 마음, "선"을 내세움. 정통성 주장의 근거.  
교는 부처님의 말씀.

달마가 2조 혜가에게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보라 라는 얘기.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

직지인심 견성성불,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듯이 자기 마음을 보라. 내 마음 깨달으면 부처.

불립문자, 이심전심; 하지만 이런 법상을 가지면 안 되겠다.



## 돈오돈수, 견성

신수와 혜능의 시: 중도적인 입장에서 설명해서 좋았음.

돈오돈수(頓悟頓修)라는 말은 깨닫는 순간 닦는 것도 마친다는 말이고, 돈오점수(頓悟漸修)는 깨닫기는 하였으나 더 닦아서 완벽하게 해야 할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혜능과 혜명/도명:

전심은 무엇이고 후심은 무엇인가? 그러면, 너의 본래 마음은?

악과 선, 그리고 본래 마음은?

견성; 보임 기간이 길다, 고행.

# 직지인심

[수행연습, 12/27/22 화]

직지인심 견성성불: 화를 내다가, 막 먹으려다가,...

성훈이와 퀘스트 가면서, checkin 알림 문자가 왔는지 묻다가

## 자성 불성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서방 정토니 극락이니 마음에 있다.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대 본성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본성을 보아라,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 선악을 구분하지도 말라. 자성이 미혹하면 곧 중생이고, 자성을 깨치면 곧 불이니라.

# 즉심즉불

<참칭기연, 범해 선사>

즉심즉불(卽心卽佛)의 뜻을 가르쳐주십시오.

**즉심즉불: 일체 상을 여임을 불이라고 함.**

혜능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전념(前念)이 나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요, 후념(後念)이 멸하지 않는 것이 곧 불(佛)이니라. 일체상(一切相)을 이룸이 곧 마음이요, 일체상을 여임이 곧 불이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무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佛)이니 마음이니 하는 말도 다 한 생각 일으켜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후념이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후념이 멸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생멸이 없는 도리가 바로 불이라는 거죠. 세상에 온갖 것을 만드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무념) 곧 불이지,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 법달선사와 법화경

[법달선사] 법화경을 3천번 읽음.

법화경은 원래 인연출세因緣出世를 중으로 삼고 있나니, 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나 다시 이를 넘지 않는다. 인연이라 함은 무엇인가? 경에 이르기를 ‘제불 세존은 오직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였으니 일대사一大事라 함은 부처님의 지견知見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미혹하여 상相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여 공空에 집착하니, 만약 능히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의면 즉시 내외로 미혹하지 않게 되느니라. 만약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 마음이 열리면 이것을 불지견佛知見을 열었다 하느니라. 불佛은 깨달음(覺)이라는 뜻이며 네 가지 문으로... 경에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간다(開示悟入)’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아무리 경 외어도 자성을 밝히지 못하면 뜻과는 오히려 원수같이 등을 지네. 무념無念이면 생각이 바르게 나아가고 유념有念이면 생각이 샷된 길을 이루며.

# 불교 가르침의 요지

1. 남악 회양, 어떤 물건이 왔는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남악 회양 스님이 물음을 던진 스승에게 찾아가서 대답했습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스승 밑에서 시봉하며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남악 회양 스님은 15년이나 스승을 시봉 하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림(保任, 찾은 본성을 잘 보호하여 지킨다, 보임, 보호임지)’이라고 하죠. 육조 혜능도 단박에 깨치지만 16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2. 요지

그 전부를 꿰뚫는 요지를 파악해야 해요. 그 요지는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나 스스로 아무런 모자람이 없고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불교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 삼신과 사지, 그리고 8식

법신, 너의 본래 마음; 보신, 지혜; 화신, 행

사지, 네 가지 지혜: 거울과 같은 지혜, 대원경; 구분하지 않다, 평등; 묘관찰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 성소작지, 이루어지는 것마다 다 안다.

8식; 전오식; 제육식 의식, 7식 무의식, 8식 무의식 아래, 아뢰야식, 정신 작용의 본체

전오식 — 안이비설신식, 의식, 무의식, ...

후3식 — 의식, 무의식/말나식, 아뢰야식

의식: 기억하는 것

8식이 맑으면 대원경지

7식이 맑으면, 무의식이 맑을 때 시비분별이 끊어짐, 평등성지

6식이 맑으면, 원리 이치를 안다,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안다 묘관찰지?

5식이 맑으면, 모든 보는 것마다 다 안다. 성소작지?

## 육조단경 즉문즉설, 법륜스님

2. 한자ㅇ: 상을 짓지말라는 뜻,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는 상을 지어야 도울 수 있다?

-그냥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 혹은 존경할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무상.

-무상이 안 된다면/힘들다면,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무주.

-무념, 무상, 무주라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가르침.

즉, "수" 감정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참회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법륜스님은 인도에 도움을 줄 때 불쌍해서 주지는 않는다. 필요해서 지원한다. 그냥 한다. 내 맘이 불쌍하게 느끼지만,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은 다른 얘기이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묻고 해줘야 한다. 내가 좋아서 주는 것은 아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해주니, 받아놓고는 다 버린다.



## 육조단경 즉문즉설, 범륜스님

3. 권○○, 전후를 알면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은 믿을 만하지 않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그 마음에 의지할 이유도 없다.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금방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을 보고, 자성을 깨닫는다? 왜 마음을 보는가? **정해진 마음이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다.**

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후심을 떨할 것도 없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마음이 변화무쌍한 것을 알며, 내 마음을 본다.

4. 사리분별 없이, 다만 알아차린다. 밋고 곱고에 의미 부여. 에티켓을 안 지키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교화?

-사람이 많아지면, 규칙이 필요하다.

-교화는 개선을 하도록 요구한다. 화를 내고 짜증내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내 수행의 관점이다. 하지만, 교화는 교화대로 시켜야 한다. 그냥 시킨다. 이건 보살행이다. 수행과 보살행을 분리한다.

## 육조단경 즉문즉설, 법륜스님

5. 이○스: 연기법이나, 양자역학에서 볼 때 원자나 생명, 사람은 모두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소중함이 가지는 의미?

-생명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죽일려고 하면 저항한다. 죽일려고 하지말라.

-사람에게 차별, 고통을 주지말라는 것이 인권 존중이다.

동물과 다르게 정신적인 고통을 잘 느끼므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말라. **어리석지 말라, 왜 내가 남에게 주는 고통은 나에게 결국 돌아온다. 부처님의 관점에 공감한다. 더 크게 봐야한다.**

**추가 1. 서스○:**

불편하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불편함을 느끼면, 집착하는 것이다.

추가 2.:

성지순례는 결국 마음을 찾는 것이다. 내 마음을 여행한다. 마음 구경.

## 육조단경 즉문즉설, 범륜스님

추가 3. 윤스님: 살생을 하지말라, 동물은 약육강식?

-살생을 하지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음.

-남시는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문명은 왜 먹지도 않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 버리는가? 식인종 추장의 말.

1. 선불교는 근본불교에 가깝다. 2. 선불교는 마음 닦는 것에 집중하니, 선불교에 사회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깨닫는 것에만 치중해서 막행막식하고, 계율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 불교의 문제점.

# 선불교 역사

1.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좌선에서.

마음을 보지 않으면, 말이 아니라 마차를 채찍질하여 마차가 움직이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앉아서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된다는 생각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마조도일의 스승, 남악 회양의 말씀.

2. 목조선 <- 조동종, 일본, 섬세 ~ 위파사나

.간화선 <- 임제종, 마조도일, 한국, 기백이 있으나 무식

3.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4. 임제종,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 큰 믿음, 큰 분노, 큰 의심



## 선불교의 역사

5. 목조선, 그냥 묵묵히 앉아서 인연을 떠나니 환희 밝아서 번뇌가 없어져 곧바로 벗어났다.

6. 5가7종

<https://m.blog.naver.com/im2959/20030011802>

7. 어느 곳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한다. 수처작주

# 5가7종

정토경전대학 | 5가7종

## 5가7종

```

graph TD
    A[1조 보리달마] --> B[2조 혜가]
    B --> C[3조 승찬]
    C --> D[4조 도신]
    D --> E[5조 홍인]
    D --> F[우두법용(우두종)]
    E --> G[청원 행사]
    E --> H[남악 회양]
    G --> I[석두 희천]
    H --> J[마조 도일(마주종)]
    I --> K[천황 도오]
    I --> L[악산 유엄]
    J --> M[백장 회해]
    J --> N[남전 보원]
    K --> O[용담 승신]
    K --> P[운암 담성]
    M --> Q[위산 영우]
    M --> R[왕벽 희운]
    L --> S[덕산 선감]
    L --> T[동산 양개]
    N --> U[양산 혜적]
    N --> V[임제 의현]
    N --> W[조주 종심]
    O --> X[설봉 의존]
    O --> Y[조산 본적]
    P --> Z[위양종]
    Q --> AA[운문 문언]
    Q --> AB[현사 사비]
    R --> AC[임제종]
    S --> AD[나한 계침]
    S --> AE[법안 문익]
    T --> AF[법안종]
    U --> AG[조동종]
    V --> AH[석상 초원]
    W --> AI[양기 방회]
    W --> AJ[황룡 예남]
    X --> AK[운문종]
    Y --> AL[법안종]
    Z --> AM[법안종]
    AA --> AN[운문종]
    AB --> AO[법안종]
    AC --> AP[법안종]
    AD --> AQ[법안종]
    AE --> AR[법안종]
    AF --> AS[법안종]
    AG --> AT[법안종]
    AH --> AU[법안종]
    AI --> AV[양기파]
    AJ --> AW[황룡파]
    
```

... 정토경전대학 ...

또



2024년 공부

# 중도, 인과

9장, 대비를 하여 중도를 얻다.

그리고, 인과를 말하다. 9장에서 중도, 인과를 설명하다.

아래 법문과 같이 중도의 뜻이 있게끔 답을 하는 것이 선문답이었구나 생각을 한다. 인과도 같이 살려서 답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법의 뜻을 묻되 유를 물으면 무로써 대하고, 무를 물으면 유로써 대하고, ... 두 도가 서로 인하여 중도의 뜻이 살아나게 하라.

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이 어두운 것이냐?]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은 바로 인이요, 어둠은 바로 연이니 밝음이 없어진 것이 곧 어둠이다] 라고 하라. 이는 밝음으로써 어둠을 나타내며 어둠으로써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오고 감이 서로 인하여 중도에 뜻을 이루나니 다른 물음에 대하여도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이 이후에 법을 전할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서로 교수하여 중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 중도와 인과의 법문, 9장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법의 뜻을 묻되 유有를 물으면 무無로써 대하고, 무無를 물으면 유有로써 대하고, 범凡을 물으면 성으로 대하며, 성聖을 물으면 범凡으로 대하여, 도二道가 서로 인하여 중도中道の 뜻이 살아나게 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한 번 물음에 한 번 대하되, 다른 물음에도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면 곧 법理法理를 잃지 않으리라.

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이 어두운 것이냐?」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은 바로 인因이요, 어둠은 바로 연緣이니 밝음이 없어진 것이 곧 어둠이다.」 라고 하라. 이는 밝음으로써 어둠을 나타내며 어둠으로써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오고 감이 서로 인하여 중도에 뜻을 이루나니 다른 물음에 대하여도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이 이후에 법을 전할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서로 교수하여 중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 2장, 공덕과 정도를 밝히다.

십악심과 팔사심으로는 정토가 10만8천리에 있다.

십악심

십악(十惡)은, 살생(殺生), 도둑질(偷盜 투도), 사음(邪淫), 거짓말(妄語 망어), 이간질(兩舌 양설),

꾸미는 말(綺語 기어), 악담(惡狗 악구), 탐심(貪 탐), 분노(瞋 진), 어리석은 마음(癡 치) 내는 것을 말하고,  
[https://ko.m.wikipedia.org/wiki/%EC%8B%AD%EC%95%85\\_\(%EB%B6%88%EA%B5%90\)](https://ko.m.wikipedia.org/wiki/%EC%8B%AD%EC%95%85_(%EB%B6%88%EA%B5%90))

팔사심八邪心

팔사(八邪)는, 생과 사가 있다는 생멸(生滅), 영원하다는 것과 끊어지고 없다는 상단(常斷), 같다 다르다고 하는 일이(一異), 오고 간다는 거래(去來)를 말합니다.

<https://pejkleetistory.com/m/841>

십선, 십악을 하지 않는 것이 십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312>